

#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

강지연\*, 이리아\*\*, 임원선\*\*\*

신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아림연구소 소장\*\*,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The Impact of Family Functioning on Self-Differentiation in College Students

ji-yeon Kang\*, Ri-a Lee\*\*, Won-Sun Lim\*\*

A Ph.D. Course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hinhan University\*, Director of Arim Research Institu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hinh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분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족기능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가족기능이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자기분화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적합치도를 산출하고,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기능은 자기분화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가족기능이 자기분화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한 가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 대학생, 가족기능, 자기분화,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자아통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healthy family functions that can help university students, who are in the transitional phase from late adolescence to adulthood, establish self-differentiation, which is a critical developmental task for them. The research examines whether family func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and self-differentiation, and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support stable self-differentiation in university students and policies to enhance family function.

To achieve this, a self-report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204 university students enrolled in a university located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The SPSS 25.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including calculating internal consistency, conducting frequency analysis to underst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descriptive statistics to determine the level of research variables, independent sample t-tests, ANOVA, and post-hoc tests to identify differences in research variabl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an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to test mediation effects.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amily function and self-differentiation, indicating that family function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establishment of self-differenti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amily function plays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self-differentiation and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practical support in education aimed at fostering healthy families.

**Key Words** : College students, Family functioning, Family dysfunction, Emotional disconnection, Self-integration, self-differentiation, Family projections

본 논문은 신한대학교 대학원 강지연 석사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Received 30 Sep 2024, Revised 22 Oct 2024

Accepted 24 Oct 2024

Corresponding Author: Won Sun Lim  
(Shinhan University)

Email: lws0120@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인간은 가족 안에서 신뢰 관계를 배우며 사회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혼율 증가와 출산율 감소, 1인 가족 증가로 가족의 안정성이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 결혼은 외부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현대에는 개인의 선택이 중요해지면서 결혼과 가족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사회는 가족 건강성을 논할 때 구조보다 기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도 건강한 기능을 가진 가족은 자율성과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가족 체계를 이룬다[1].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해 가족 기능이 중요하다. 역기능적 가정은 부정적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2].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기능이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건강한 가족기능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가족소통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대학생의 건강한 자기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가족기능

가족 기능은 사회를 존속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가족 구성원의 욕구 충족과 유지에 영향을 주고 가족 전체의 안녕을 도모한다[3]. 가족체계이론은 가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패러다임으로, 이를 기반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이론적 모델이 개발되었다[4]. 대표적인 모델로는 순환모델, McMaster 모델, Beavers 체계 모델이 있으며, 순환모델은 가족기능을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의 개념으로 설명한다[5].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족기능은 가족 구성원의 자율성과 발달을 지지하며, 원만한 상호작용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유연한 가족체계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 2.2 가족기능의 조작적 정의

가족기능은 Bowen의 이론을 토대로, 가족체계 내에

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의 성장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가족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으로 측정된다.

### 2.3 자기분화

자기분화(Self Differentiation)는 Bowen(1976)[6]의 가족치료 모델의 핵심 개념으로, 개인이 가족 구성원이나 의미 있는 타인과 자신을 분리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성숙과 독립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 내적인 차원에서 감정과 이성의 분화된 정도를 나타내며, 대인관계 차원에서 나와 타인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타인과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지만 정서적으로 융합되지 않고, 자아를 잘 유지하여 독자적이다. 반면, 자기분화가 잘 되지 않은 사람은 자율성이 부족하고 타인과 융합하려는 경향과 의존성을 보인다. 김내원(2015)[7]에 따르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두 체계가 융합되고 동질화되어 타인의 인정과 소속감을 위해 쉽게 동조하고 자신의 일관된 가치나 생활 원리를 상실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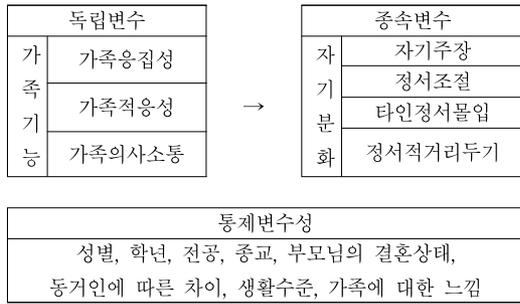
### 2.4 자기분화의 조작적 정의

자기분화는 개인이 가족 내에서 정서와 사고를 분리하고 독립적인 자아를 확립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정서적 기능과 지적 기능', '친밀감과 개별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측정되며, 가족 투사, 정서적 단절, 자아통합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의 연구모형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독립변수는 가족기능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자기분화로 설정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성별, 학년, 전공, 종교, 부모님의 결혼상태, 동거인의 차이, 생활 수준, 가족에 대한 느낌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가족기능과 자기분화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효과 연구모형

### 3.2 연구 문제 및 가설

- 연구문제: 1.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가설: 가족기능은 자기분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기 북부에 거주 중인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일 ~ 8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대면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총 177명이 참여하여 177부가 회수되었고, 제외된 것 없이 177부 전부 분석에 활용하였다.

### 3.4 측정변수

####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의 본질과 정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대학생들의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을 보완한 서루비(2014)[8]의 대학생용 자기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1) 자기분화 척도 하위요인 및 신뢰도

변수	문항 수	Cronbach's α
자기주장	13	.885
정서 조절	10	.881
자기분화 타인 정서 몰입	6	.810
정서적 거리 두기	7	.772
전체	36	.913

####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Noller(1992)[9] 등이 개발한 ICPS 가족기능 척도(ICPS Family Functioning Scales : ICPS-FFS)를 이지원, 2006[10]; 성주섭, 2016)[11]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2) 가족기능 척도 하위요인 및 신뢰도

변수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가족 응집성	10	1, 2, 9, 10, 12, 14, 17, 21, 24, 25	.910
가족 적응성	7	3*, 6, 7*, 15, 16, 19, 22	.797
가족 의사소통	6	4*, 5, 8*, 11*, 18, 20	.750
전체	23		.930

### 3.5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자기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척도별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연구 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연구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단위: 명, %)

항목	구분	N	%
성별	남자	56	31.6
	여자	121	68.4
학년	1학년	40	22.6
	2학년	27	15.3
	3학년	27	15.3
	4학년	83	46.9
전공	인문사회과학	71	40.1
	자연과학	34	19.2
	공과대학	27	15.3
	의생명공학	18	10.2
	예술대학	8	4.5
	의과대학	2	1.1
	기타	17	9.6
종교	기독교	79	44.6
	천주교	10	5.6
	불교	14	7.9
	없음	74	41.8
부모님 결혼상태	기혼	143	80.8
	별거	3	1.7
	이혼	11	6.2
	재혼	3	1.7
	사별	15	8.5
	기타	2	1.1
동거인	부모	124	70.1
	조부모	5	2.8
	형제 · 자매	11	6.2
	외가 친인척	1	0.6
	혼자 산다	22	12.4
	친구	2	1.1
	연인	5	2.8
생활 수준	기타	7	4.0
	매우 부유한 편	3	1.7
	비교적 부유한 편	31	17.5
	보통	129	72.9
	비교적 어려운 편	9	5.1
	매우 어려운 편	5	2.8
가족에 대한 느낌	매우 행복하다	43	24.3
	행복하다	85	48.0

항목	구분	N	%
	보통이다	38	21.5
	행복하지 않다	8	4.5
	전혀 행복하지 않다	3	1.7
전체		177	100.0

##### 4.2 주요변수의 특성

본 연구에서 측정된 연구 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가족기능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69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의 평균은 가족 응집성 3.82, 가족 적응성 3.55, 가족 의사소통 3.65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0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의 평균은 자기주장 3.37, 정서 조절 3.54, 타인 정서 몰입 2.93, 정서적 거리 두기 3.13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다. 왜도는 절댓값 3 미만, 첨도는 절댓값 10 미만이면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Kline, 2016), 모든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수의 특성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가족기능	가족 응집성	1.40	5.00	3.82	0.71	-0.76	0.81
	가족 적응성	1.57	5.00	3.55	0.67	-0.31	0.12
	가족 의사소통	1.50	5.00	3.65	0.71	-0.46	0.15
	전체	1.52	5.00	3.69	0.62	-0.51	0.50
자기분화	자기주장	1.62	5.00	3.37	0.64	-0.03	-0.54
	정서 조절	1.40	5.00	3.54	0.71	-0.14	-0.18
	타인 정서 몰입	1.17	5.00	2.93	0.78	0.13	-0.35
	정서적 거리 두기	1.43	4.71	3.13	0.72	0.00	-0.45
	전체	1.92	4.53	3.30	0.52	-0.08	-0.22

##### 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 1)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른 자기분화의 정서 조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정서 조절( $t=2.388, p<.05$ )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변수	구분	N	Mean	S.D	t	p
가족기능	남자	56	3.73	0.66	0.490	.625
	여자	121	3.68	0.60		
가족 응집성	남자	56	3.82	0.78	-0.036	.971
	여자	121	3.82	0.68		
가족 적응성	남자	56	3.63	0.64	1.180	.240
	여자	121	3.51	0.68		
가족 의사소통	남자	56	3.69	0.75	0.428	.669
	여자	121	3.64	0.69		
자기분화	남자	56	3.38	0.58	1.452	.150
	여자	121	3.25	0.48		
자기주장	남자	56	3.39	0.69	0.292	.771
	여자	121	3.36	0.63		
정서 조절	남자	56	3.72	0.78	2.388*	.018
	여자	121	3.45	0.66		
타인 정서 몰입	남자	56	2.99	0.77	0.686	.494
	여자	121	2.90	0.78		
정서적 거리 두기	남자	56	3.23	0.76	1.318	.189
	여자	121	3.08	0.70		

\* p<.05 \*\* p<.01 \*\*\* p<.001

2)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연구대상의 부모님 결혼상태에 따른 자기분화의 자기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자기주장(t=-2.283, p<.05)은 이혼/사별/기타가 기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변수	구분	N	Mean	S.D	t	p
가족기능	기혼	143	3.71	0.62	0.830	.408
	이혼/사별/기타	34	3.61	0.64		
가족 응집성	기혼	143	3.86	0.68	1.555	.122
	이혼/사별/기타	34	3.65	0.81		
가족 적응성	기혼	143	3.52	0.69	-1.059	.291
	이혼/사별/기타	34	3.66	0.56		

변수	구분	N	Mean	S.D	t	p
	이혼/사별/기타	34	3.66	0.56		
가족 의사소통	기혼	143	3.69	0.69	1.376	.171
	이혼/사별/기타	34	3.50	0.76		
자기분화	기혼	143	3.28	0.53	-0.696	.487
	이혼/사별/기타	34	3.35	0.45		
자기주장	기혼	143	3.32	0.65	-2.283*	.024
	이혼/사별/기타	34	3.60	0.55		
정서 조절	기혼	143	3.55	0.74	0.486	.627
	이혼/사별/기타	34	3.48	0.57		
타인 정서 몰입	기혼	143	2.94	0.77	0.259	.796
	이혼/사별/기타	34	2.90	0.81		
정서적 거리 두기	기혼	143	3.14	0.70	0.281	.779
	이혼/사별/기타	34	3.10	0.79		

\* p<.05 \*\* p<.01 \*\*\* p<.001

3) 부모님의 결혼생활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연구대상의 부모님 결혼상태에 따른 자기분화의 자기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자기주장(t=-2.283, p<.05)은 이혼/사별/기타가 기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 부모님의 결혼생활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변수	구분	N	Mean	S.D	t	p
가족기능	기혼	143	3.71	0.62	0.830	.408
	이혼/사별/기타	34	3.61	0.64		
가족 응집성	기혼	143	3.86	0.68	1.555	.122
	이혼/사별/기타	34	3.65	0.81		
가족 적응성	기혼	143	3.52	0.69	-1.059	.291
	이혼/사별/기타	34	3.66	0.56		
가족 의사소통	기혼	143	3.69	0.69	1.376	.171
	이혼/사별/기타	34	3.50	0.76		
자기분화	기혼	143	3.28	0.53	-0.696	.487
	이혼/사별/기타	34	3.35	0.45		
자기주장	기혼	143	3.32	0.65	-2.283*	.024

변수	구분	N	Mean	S.D	t	p
정서 조절	이혼/사별/기타	34	3.60	0.55	0.486	.627
	기혼	143	3.55	0.74		
	이혼/사별/기타	34	3.48	0.57		
타인 정서 몰입	기혼	143	2.94	0.77	0.259	.796
	이혼/사별/기타	34	2.90	0.81		
	기혼	143	3.14	0.70		
정서적 거리두기	이혼/사별/기타	34	3.10	0.79	0.281	.779
	기혼	143	3.14	0.70		

\* p<.05 \*\* p<.01 \*\*\* p<.001

## 5. 결론

###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대학생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기분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족기능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경기 북부에 거주 중인 대학생 177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가족기능, 자기분화, 자기효능감 변인의 상관관계를, 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능이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연구 변인의 차이에서 자기분화의 하위 요인인 정서 조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정서 조절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연구 변인의 차이에서 가족기능, 자기분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과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의 가족기능, 자기분화, 자기효능감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전공에 따른 연구 변인의 차이에서 가족기능, 자기분화,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공과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의 가족기능, 자기분화, 자기효능감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따른 연구 변인의 차이에서 자기분화의 자기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자기주장은 이혼/사별/기타가 기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생활 수준에 따른 연구 변인의 차이에서 가족기능 전체와 가

족응집성, 가족 의사소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 전체와 가족 응집성, 가족 의사소통은 부유한 편이 어려운 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기분화에서는 생활 수준에 따른 자기주장과 타인 정서 몰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느낌에 따른 연구 변인의 차이에서 가족기능 전체와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가족 의사소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 전체와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가족 의사소통은 매우 행복, 행복, 보통, 행복하지 않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분화에서는 가족에 대한 느낌에 따른 자기분화 전체와 자기주장, 정서 조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 전체는 매우 행복이 보통과 행복하지 않음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기주장과 정서 조절은 매우 행복이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가족에게 느끼는 차이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가족기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가족기능이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기능은 자기분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의 하위요인인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가족 의사소통 요인 중 가족 의사소통( $\beta=.498, p<.001$ ), 가족 응집성( $\beta=.351, p<.001$ ), 가족 적응성( $\beta=.324, p<.001$ ) 순으로 자기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영진(202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15].

### 5.2 함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 구조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기능이 대학생들의 자기분화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자기분화와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켜 건강한 성인으로서 자립함은 물론 바람직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자기분화에 미치는 건강한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실천적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자기분화 향상에 있어 가족기능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가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예비부부 교실, 신혼기 부부 교육, 예비 부모 교육 등의 예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의 바람직한 자기분화를 위해 자기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며, 자기실현 교육 및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루게 되는 시대인 만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결손가족 등의 가족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관계할 수 있는지 다양한 가족들의 소통방식과 차이를 연구하고, 성공적인 가족의사소통 사례를 발굴·공유하여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가족이 형성되기 전 혹은 초기 단계에 결혼 준비교육, 신혼기 부부 교육, 예비 부모 교육 등의 선제적이고 보편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5.3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언

첫째, 경기 북부에 거주 중인 남녀 대학생들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구되었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지역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보편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규모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표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였으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필요한 주제로서, 대학생을 포함한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하면 보다 구체적인 가족복지 정책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대학생들의 가족기능에 대한 이해와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 결과만으로 가족기능이 대학생들의 자기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부모 자녀 간에 지각하는 가족기능은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족구성원이 인식하는 것의 차이를 함께 연구해 본다면 건강한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변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개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pp, 119-151.  
 [2] 성영혜·신귀순(2001). 가족기능과 아동의 자기역량 지각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가족적응력과 가족

결속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2), 45-63.

[3] 김정운(2016), “청소년용 가족기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김정운(2016), “청소년용 가족기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J. (ed).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6] 김내원(2015),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상관관계성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연구”, 충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서루비(2014), “대학생용 자기분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Noller, P., Seth-Smith, M, Bouma, & Schewtzer, R (1992) Parent and adloescent perceptions od family functioning: a comparison of cli,ix and nonclinic families. *Journal od Adolescence*, 15, 101-114.  
 [9] 이지원(2006),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성주섭(20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박영진(2024), “대학생이 인식하는 자아분화,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심리적안녕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상담심리교육복지(2), pp 225-242.

강 지 연 (Kang ji-yeon)

- 2024년 02월: 신한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가족복지, 사회복지 실천
- E-Mail: kjyeon2002@naver.com



이 리 아 (Lee Ri-A)



- 2022년 08월: 신한대학교 일반대학원 남북협력행정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23년 12월~현재: 아림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가족상담, 사회복지실천
- E-Mail: dmstlfdl7607@naver.com

임 원 선 (Lim, Won-Sun)



- 2004년 2월: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문학박사
- 2023년 12월: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주임교수,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21년 12월~현재: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회장
-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 E-Mail: lws0120@hanmail.net